컴퓨터에 대한 맹신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 개인 레포트

14012718 민아영

현대에 사는 우리는 문명의 전성을 누리고 있고 그 전성을 누리게 하게끔 도와준 ‘기계’가 있고 그 중심에는 ‘컴퓨터’가 있다.

‘컴퓨터’와 ‘기계’는 지금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도움을 주며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컴퓨터’와 ‘기계’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사람들도 있고 인간이 가지 못하는 위험 지역에 대신 가주기도 한다. 또한, 인간보다 정교한 기술과 빠르고 정확한 기술로 물건을 생산해내고 어려운 수학 공식 등을 대신 풀어 주기도 한다. 팔다리가 없는 인간의 수족이 되기도 하고 요리도 대신하기도 한다. 이처럼 그들은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 중 가장 큰 것은 아마도 ‘과연 기계를 믿어도 되는 것인가?’이다. 기계, 컴퓨터는 인간이 준 명령 이외에는 절대 수행하지 않으며, 오차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요즘에는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기계 스스로가 판단하고 수행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인간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왜 인간은 기계와 컴퓨터가 발명된 이래로 끊임 없이 이러한 질문을 해왔을까? 기계는 인간이 입력한 값과 일 이외에는 수행하지 않는데도 말이다.

많은 영화에서 기계(인공지능)와 인간의 싸움에 대해서 묘사하고 항상 결론은 인간이 기계를 파괴함으로써 모든 싸움이 종결된다. 이런 식의 줄거리는 많은 영화를 통해서 거의 정형화되었고 영화 속에서의 기계(인공지능)은 너무 똑똑한 나머지 스스로 항상 ‘인간이 가장 큰 적’으로 인식하여 인간을 지키기 위해 ‘인간을 죽인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인간을 죽인다. 왜 항상 이야기가 이렇게 될까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거 같다.

언어데이터 수업을 들으면서 항상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는 ‘프로그램에 정확하게 명령을 내려주어야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수행하고 그 이외에는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었다. 이렇듯 교수님의 말씀과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계는 우리가 작동한 대로만 작동할 뿐이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답은 ‘인간’밖에는 없을 것이다. 만약 시작할 때부터 인간의 잘못된 조작으로 시작 했다면, 당연히 기계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지시한 대로 갈 뿐, 그 조작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은 물론 의구심조차 들지 않고 수행할 것이다. 그리곤 어떤 사고가 날 때에는 기계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인간’이 잘못한 것일뿐.

이렇듯 인간의 그릇된 사용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올 뿐, 기계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 있다면 그렇다면 ‘기계를 믿어도 되는가?’의 의문은 ‘기계를 다루고 관리하는 인간을 믿어도 되는가?’로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의구심으로 시작된 것이 우리가 이번에 본 영화 ‘더 플랜’일 것이다.

‘더 플랜’은 저번 2012년 대선과 관련된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사하고 여러 이상점을 찾아내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로서, 다양한 관점과 증명들로 2012 대선이 부정하다는 것에 대해 말한다. 이 영화 초반에 이 대선의 개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심에 ‘전자 개표기’가 있다. 이 것은 네트워크도 연결이 되지 않고 오로지 선거 개표만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개표기’는 단 2번 중앙 네트워크에 연결되는데 이때 아주 작은 해킹 프로그램만 심으면 해커가 원하는 대로 조작가능하고 유권자가 어떤 표를 하였던 간에 상관없이 해커가 원하는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이 개표기의 프로그램이 해킹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통계학적으로 풀어내서 부정선거가 행해졌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다.

이 영화의 맹점 역시 ‘기계는 믿을 수 없다’였다. 솔직히 앞에서 말했듯이 기계는 시키는 일만 할 뿐 다른 일은 절대 하지않는다. 기계는 믿을 수 있지만 인간을 믿을 수 없다. 기계를 잘 쓰면 편하고 좋지만, 기계를 다루는 인간이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기계는 그대로 그것을 반영해주기 때문에 기계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의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런 곳에서 드러나게 되고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도 해커의 조작이나 기계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한 유권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개표 시 공개 개표를 통해서 더 정확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정말 내가 원하는 후보자를 마음대로 지지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